

# 밤낮 없는 ‘도로위 시한폭탄’ 패가망신 음주운전 여전하다

하루 평균 적발 건수  
광주 22명·전남 29명  
매년 1만8000여명 달해  
  
벌금만 1년간 500억  
음주운전사고 증가 추세  
낯술운전도 끊이지 않아



■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3월까지)

| 광주      | 전남      |
|---------|---------|
| 1월 665명 | 1월 733명 |
| 2월 513명 | 2월 612명 |
| 3월 649명 | 3월 866명 |

■ 올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 (26일 현재)

|                         |
|-------------------------|
| 광주 296건(사망 4명·부상 495명)  |
| 전남 346건(사망 17명·부상 606명) |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매일 1500명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해마다 1만8000여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7959명이다. 하루 평균 21.8명, 한 달 평균 663명 수준이다. 그나마 광주지방경찰청이 음주 단속을 느슨하게 한 게 이 정도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했던 2013년의 경우 무려 9907명이 ‘도로 위 살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도 다르지 않다. 2012년 9954명이던 음주운전 적발자는 2013년 1만424명, 지난해 1만405명이 적발되는 등 하루 28.5명으로, 매일 진행되는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월 말 기준 광주지역 운전면허 보유자는 86만478명, 전남은 100만6014명. 지난해 한해 동안 광주에선 108명 중 1명, 전남에선 9.7명 중 1명꼴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셈이다.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에 개인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사

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음주운전자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특히 지난 2년 간 전남은 면허 정지 수준의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운전자(2014년 4968명·2013년 4892명)보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2014년 5437명·2013년 5532명)가 더 많았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의 ‘무대포식’ 낯술 운전도 심각하다. 지난해만 전남에서 적발된 대낮 음주운전자만 1744명으로 광주(561명)에 견줘 3배가 더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이하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이하의 경우 300만~500만원 이하, 0.2% 이상 500만~1000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일률적인 통계를 내기는 힘들지만 예상 벌금을 고려하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자가 낸 벌금만 500억을 넘어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자가 끊이지 않으니 사고도 줄지 않는 추세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 현재까지 296건(사상자 499명)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지난해 268건(사상자 579명)보다 10.45% 증가했다. 전남도 346건(사상자 623명)으로 지난해 337건(사상자 579명)에 비해 2.67% 늘어났다.

지난달 26일에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병원 앞에서 박모(2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렌트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4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전남경찰은 올해부터 13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주간 음주단속을 진행중이며 광주경찰도 매주 일요일 시 외곽지역에서 대낮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감소세가 미미해 별도의 계도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박정관 교수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평생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속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도·홍보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초등학생 생태공원 체험학습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 세월호 항소심 선고 관심 집중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을 앞두고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의 선원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고법 2010 회법에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갑판부 승무원 8명과 기관

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한민국을 슬픔으로 잠들지 못하게 했던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량 여부도 관심사다.

재판부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

선 명령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할 정도로 살인죄 인정 여부는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1심 무죄 판결이 났던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를 인정할 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법률적 판단에 이어 사실심(事實審)의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일부 선원들에 대해 형량이 낮춰질 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학생 뒤따라가 추행 학교 직원 집유 신고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응우)는 27일 여학생을 따라가 추행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가는 불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정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사회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의 여중생(15)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금품 훔쳐 달아난 후배 납치 폭행·감금한 2명 붙잡아

광주서부경찰은 자신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후배를 쫓아가 폭행하고 납치, 차량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박모(2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8시께 경북 청도군의 한 분식집에서 후배 정모(17)군을 수차례 때린 후 차량에 강제 태워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군이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자 고향인 청도군까지 쫓아가 정군을 붙잡았다.

박씨와 김씨에게 붙잡힌 정군은 지인에게 몰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정군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광주에서 10여분간 3km 거리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김형호기자 khh@

## 10대 상대 ‘조폭 문신’ 장사 탈미



○~성인과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조폭 문신’ 장사를 해온 ‘악덕’ 문신 시술업자 2명이 경찰서행.

○나주경찰에 따르면 장모(27)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나주 모고교 학생 A(17)군 등 학생 6명을 포함 총 20명에게 문신 크기에 따라 10만~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무면허로 문신을 시술해 2000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장씨 등은 나주시 산포면의 한 원룸 등에 자동 문신용 기계 등을 갖춰놓고서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용, 도깨비, 일본 무사 등 문신 시술을 잘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마구잡이로 손님을 모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에 결국 달미.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 구·사·일·생

광주서 아파트 14층·11층서 추락  
고교생·초등생 골절상...목숨 건져

광주에서 초등생과 고교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잇따라 추락했지만, 둘 다 골절상만 입었을 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5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 14층(높이 30m)에서 A(17)군이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A군은 사고 직후 인근 주민의 신고

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또 다른 아파트에선 초등학생인 B(11)군이 11층(높이 25m) 아래 화단으로 떨어졌다.

B군은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만 입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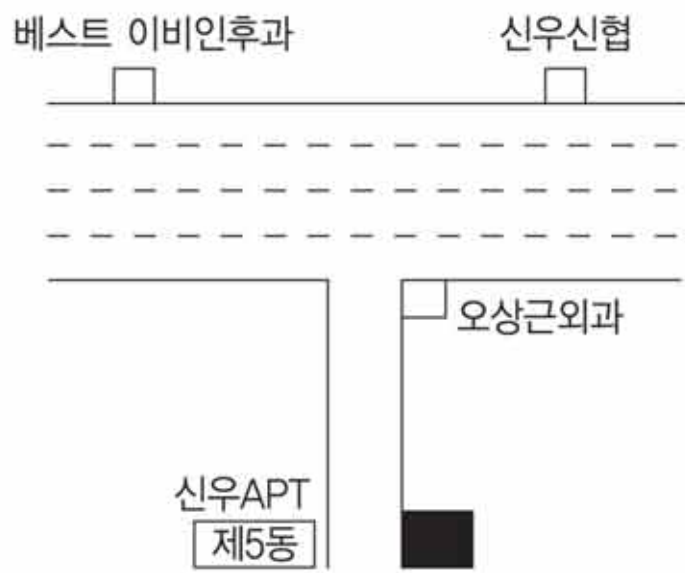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추락할 당시 화단에 심어진 나무와 잔디 등이 완충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급매” 합니다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19평
- 전망좋음, 2013년 신축
- 방 2, 화장실 1, 거실, 베란다
- 내부깨끗,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삭 보5백에 월 45만 가능
- 전세 8천만원 가능
- 대출 7천만원 가능
- 감정/시세 - 1억 2천만원 정도
- 매매 - 9천 4백만원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첫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삭 보1천만에 월 65만 가능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 대출 1억 1천만원 가능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천 4백만원



문의.010-3605-5000

## 경매투자

- ▶ 특수비밀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 등
-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